

第55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 會議錄 第1號

(閉會中)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1月 12日(金) 12時 31分

場 所 運營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議事運營 計劃(案)
2. 1996年度 鍾路區議會 豫算執行 計劃(案)
3. 1996年度 第1次 議員 세미나의 開催 協議의 件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議事運營 計劃(案) 1面
2. 1996年度 鍾路區議會 豫算執行 計劃(案) 4面
3. 1996年度 第1次 議員 세미나의 開催 協議의 件 10面

(12時 31分 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하시는 사업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맞이하는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신중한 결론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금년 운영위원회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회의에는 없었던 절차로서 열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우리 의정활동하는 것과 어떤議員들 간의 화합하는 그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한 한 차원 진전된 절차로서 '96년도 의회를 꾸려갈 우리 종로구의회의 연간계획, 그 예산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議長께서 작성한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생산적인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회의에議長으로부터

요청된 안건은 첫째, '96년도 의사운영 계획, 둘째, '96년도 의회 예산 집행계획, 세번째, '96년도 제1차 의원 세미나 개최 그렇게 해서 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안건별로 본위원장이 계획안을 배부해서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議事運營 計劃(案)

(12時 35分)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협의의 건 제1항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議事運營 計劃(案)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종로구의회 의사운영 계획을 봐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96 의사운영 계획, '96 정기회 개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제2대 제2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단 선출, 의장·부의장 선출, 의원 해외연수, 의정 특별활동으로 개원 5주년 기념행사, 의원 세미나 개최, '96 의정보고회, 기타 의정활동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사운영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운영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39조에 근거를 두고 그 기본 방침은 회기를 월별로 균형적으로 운영해서 예측 가능성 부여, 안전심사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 기능을 정례화, 의원 총의에 의한 화합 운영입니다. 그래서 회의 일수는 임시회 법정일수 45일 사용계획 45일 등 한 번 회기에 15일 이내에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35일로 법정일수입니다. 사용계획도 35일로 해놨는데 우리가 금년 12월 29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2월 24일로 좀 종료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이따가 카렌다를 보면서 한 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임시회가 매월 1회 있고 의원 세미나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번 있고 11월 중에 있고 해서 1년에 두 번 해놨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는 의원 세미나가 지난해 10회 있었고 각 의회마다 최소 3, 4회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연수가 2월 중순 경에 선진국 의회로 해서 지난 '95년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議員님, 議長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이제 2월 중순 가장 한가로운 때를 취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연수는 한번만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출장 형식으로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잡혀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로 4월 중에는 우리가 의회 개원 5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한 번 있고 10월 중에 한 번 있고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 번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십시오. '96 정기회 개최는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개정 거기에 2기 위원회 임기 개시 전, 그러니까 '96년 7월 12일 이전에 상임위원회 회의시 토의를 거쳐 실시 예정입니다. 거기의 현재 소관업무가 시민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소관이 조금 편

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재조정할 그런 개정할 생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제2대 2기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단 선출입니다. 7월 13일부터 운영위원회 아홉 사람, 시민행정위원회 열한 분, 도시건설위원회 아홉 분 해서 제6조 내지 4조의 근거에 의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유인물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의장·부의장 선출은 '97년 내년 1월 12일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1년6월인데 참고로 1년 6월로 된 것은 부칙안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금년에 2기 의원들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1년 6개월로 해서 하한으로 해서 의장·부의장 선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 열 분 안 가신 분들에 대한 2,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연구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못가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해서 아홉 분이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되지 않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의정 특별활동입니다. 그래서 5주년 기념행사가 4월 15일날 구청 강당에서 각 동네 다섯분씩 이렇게 모시는 경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열 분씩 할 경우에는 이백 분이 조금 넘습니다. 강당의 규모에 맞춰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결정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세미나 개최입니다. '나'항에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전에 구두 대충 계획을 좀 잡아보시라고 해서 1, 2, 3일로 정했었는데 2월 3일날이 같은 동료 議員이신 鄭泰淳議員님이 몰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서 저희들이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2월 3일로 잡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마음껏 축하를 해줘야 할 마당이고 해서 1월 31일, 2월 1일, 2일로 조정했다가 시장님 초도순시가 1월 31일날 있다고 해서 2월 5, 6, 7 월, 화, 수로 바꾸었

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기 때문에 좀 날짜가 좋은 날을 택해왔습니다. 다음 '다'란에 뒷장 마지막 장에 '96 의정보고회입니다. 12월 말에 구청 4층 강당에서 지역주민하고 지역유지 이렇게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정 활동으로 유관기관 및 노인정 방문 및 연 두 번 있습니다. 연 두 번 불우이웃돕기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96년도 의사운영 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조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일수에 대해서 정기회가 12월 29일날 끝나게 됩니다. 연말에 바쁘신데 어쩐지, 카렌다가 하나도 안 걸려 있네요. 하나만 좀 카렌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세미나 개최가 1, 2, 3일이 3, 4, 5일로 바뀌었나요?

○委員長 羅在岩 2월 3일날이 鄭泰淳議員 혼사날이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세미나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유인물로 책상 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6일, 7일 월, 화, 수로 이렇게 일요일날 쉬시고 그렇게 해놔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일정이 2월 1일, 2일, 3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지금 다짜신 의원님들이 아마 몇분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沈載得議員님, 洪起瑞議員님은 세미나를 5, 6, 7일로 하게 되면 이번 세미나에 동참이 매우 어려우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일정을 잡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좀 원만하게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3일날 결혼식이 몇 시입니까?

○委員長 羅在岩 한 시입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3일날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는 것으로 해서 1, 2, 3일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羅在岩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본인도 참여를 못하겠네요. 신

혼여행 안가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지.

(○李炯述委員 議席에서 - 마침 신랑도 왔네요. 그날 새벽에 출발해 가지고 식당에 갈 수가 있습니까? 3일날. 그러니까 현지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가지고 식당에 갈 수가 있습니까? 안되죠. 하루 전날 와야죠.)

○丁昌熙委員 1, 2, 3일인데 3일날 혼사가 있으시면 2일날 하루만 같이 동행해서 행사를 하시고 2일날 일찍 오시는 것으로 하시더라도 3일날 12시쯤이나 12시 반에 서울에 예약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면 예정했던 대로는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1, 2, 3일 2박 3일 일정은 잡고 3일날만 일찍 예약장에 맞춰서.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그날 토요일이니까 그것도 좋죠.)

○丁昌熙委員 왜냐하면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스케줄을 잡아놓은議員님들이 계신데 5, 6, 7일 하면 도저히 세미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의원이 沈載得議員하고 洪起瑞議員님이거든요. 1, 2, 3으로 안하면 5, 6, 7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숙의를 거쳐……

○委員長 羅在岩 지금 정식안에 협의 세미나건은 조금 뒤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 다른 案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이따 다시 세부계획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의사운영 계획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것은 '95년도에 정기회가 우리가 임시회에서 정기회의 기간을 4일인가 잠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일날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연말에 업무 보는 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의사운영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현재 임시회를 더 쓰고 정기회를 지금 줄이자는 것을 공식석상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소관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의사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羅在岩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법정기일이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신축적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그대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羅在岩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되었는데 지금 蔣昭秀 專門委員님께서 잘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12월 24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기회 개최는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종로구의회 의사운영 계획(안)은 의장이 협의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年度 鍾路區議會 豫算執行 計劃(案)

(12時 50分)

○委員長 羅在岩 협의의 건 제2항 '96年度 鍾路區議會 豫算執行 計劃(案)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96 예산현황을 전문위원께서 대충 포괄적인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專門委員 蔣昭秀 예산 집행계획 보고 순서는 의회 예산 총괄현황이고, 두번째는 의정활동 공통경비 내역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방안으로 홍보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사무국의 시책업무 추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의회 해외연수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의회 예산 현황은 총 예산이 12억6,800만원입니다. 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에는 총계 議員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7,77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액 9,260만 2,000원보다는 약 한

2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성있게 집행하지 않으면 연말 정기회의 때 가서 예산이 부족되는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 집행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앞에 '96년도 집행계획을 보겠습니다. 회의비는 3,360만원 집행, 그 다음에 수련대회 및 세미나 상·하반기 2회 해서 천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회의가 월 3회 해서 528만원, 부속실 운영비가 월 60만원 해서 720만원, 간담회 및 유관기관 격려 4회 해서 800만원, 의정보고회 천만원, 그 다음에 개원 기념일 행사 천만원, 기타 의정활동 타의회 방문시 예산액 362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월 평균 647만5,000원 정도가 집행되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 계획이고 운영에는 탄력성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홍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의의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지방의회의 활동사항을 홍보시키고 따라서 주민자치의 의식 함양이 되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정홍보비 집행 실태는 우리 관내 주관 지역신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 방법은 지역신문이 광고 게재하는 정도로밖에 지금까지 홍보활동 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활동 문제점들이 방금 적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 장입니다.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議員님들이 활동하는 만큼을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야 되겠다 해서 홍보활동 강화방안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3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째 안은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의회란을 2, 3면을 독점해서 매주 그 지역신문을 통해서 의회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그 지역신문을 우리가 구독권을 구입해서 동 관내의 독자에게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겠고, 두번째 안은 의회 자체에서 의정

홍보지를 만드는 방법, 세번째 안은 반상회시에 반상회보에 끼우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세 안 중에서 2안, 3안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봐서 제1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지역신문 연간 구독권을 계약을 하고 각 동별로 일정 부수를 배포를 하는 그런 방법하고, 홍보활동 개선방안 채택과 지역신문 채택은 오늘 이 위원회에서 어느 신문으로 할 것인지 의결로써 결정하도록끔 그렇게 원칙을 정했고, 세번째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전의원에게 통지해서 서면으로 議員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세부계획은 구독 대상자 선정은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줄 수 없고 해서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각 동별로 통장님한테는 전원 배포를 하고, 두번째는 노인정에 그 다음에 직능자생단체장한테 각 동별로 하고, 이 특정수에 맞춰 별표에 나옵니다마는 독자는 객관성을 유지하도록끔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별 배부 수량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은 우리 동 전체가 757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3천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계약을 맺으면 3만6천원에서 6천원이 다운이 돼서 3만원에 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2,271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총 3천만원 중에서 729만원은 예산이 남게 됩니다. 이 예산은 개원 기념일 행사같은 데 광고비로 쓰도록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기타 사항에는 신문배달 확인서 양식 및 계약방법이라든가 배달지침 등은 우리가 별도로 정해서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촉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별첨에 보시면 배부 수량이 나옵니다. 맨앞에 동장 수가 아니고 통장 수입입니다. 통장 수가 각 동별로 쭉 나와있고 그 다음 노인정 숫자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직능자생단체는 동별로 공히 똑같습니다. 소계에 보면

배부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큰 4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원 5주년 행사 및 의회운영 활동비로 해서 금번 예산이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委員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아래 집행범위를 보겠습니다. 4,500만원 중에서도 개원 5주년 기념행사에 천만원, 또 주민과의 대화에 천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의정활동수행 보조비로 해서 월 70만원 해서 12월 해서 840만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구청에 타과장들은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입법자료 조사비 월 50만원 해서 두 사람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사무국직원 계별로 월 10만원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천만원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연수시기라든지 연수 대상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페이지 2페이지 등은 전부 지침에 의한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 같고 다음 3항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이 있으면 집행에 대하여 지금 예산집행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金以煥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창신2동 金以煥委員입니다. 목이

조금 이상해서 말씀이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지역신문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는 지역신문이 2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서 보니까 미리 승인을 받고 그러던데 거기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이 한 군데로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신문이 2개 있으니만큼 모든 것을 똑같이 차별없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어느 신문이 잘못된 점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불러다 타이르고 훈계할 것은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 있으면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 신문에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하고 안하면 같이 안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먼저 운영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사전에 사인을 받고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마땅히 올라왔으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알고 사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설사 다수의 많은 사람이 사인을 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항상 존중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金以煥委員長님 의견을 여러분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신문사에서 저희들 앞으로 청원서가 들어와서 그런데 사실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예산을 홍보비로 해서 해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청원서가 들어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여기 종로신문에 다시 이렇게 부제로 들어와 있는 것에 형사재판 확정증명원 들어 있는 팩시용지가 하나 들어와 있고 또 '96 홍보활동비 등에 동의 건의서 등이 위원님들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으시고 우리 金以煥委員長님의 말씀도 참고로 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憲中 종로신문에 대해서 또 종로저널신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얘기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金以煥委員長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목적만은 동감을 표시하고 싶은데 우리가 1기 때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하고 똑같이 배분해서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신문 둘 다 좋지 않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전액이 삭감되었고 '94년도 '93년도에는 계속해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그런데 신문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키고 공과 사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1기 의원 당시 돈주는 사람은 잘 써 주고 돈 안주는 사람 안써주고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신문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돈을 주느냐고 한 번 물어 보니까 1기 때 돈 안주는 사람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돈을 주는구나 해서 나도 돈을 30만원 주고 20만원 10만원 주고 이렇게 했더니 100만원을 달라고 왔어요. 신문 한번당.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다면 이것은 사이비 신문에 틀림없는 것이고 그 후에 계속해서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 세미나가 우리가 해외로 연수를 갈 때 25개 구 거의가 의장단 회의에서도 결의가 되어서 갖고 거의 승인 받아서 갖고 안 간 사람은 여기 남아 있는 몇 분하고 의장이 안 갔

습니다. 의장이 가게 되면 제 마음 속으로 선두에서 의장이 해외나 왔다갔다 하느냐 해서 나는 의회를 지키고 초선 의원 위주로 해서 보내자는 상임위원장들의 뜻에 의해서 나는 그대로 따랐더니 배웅을 하고 막 돌아왔더니 신문이 역시 도둑놈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쓰더라도 ‘모두들 다 제발이 저리는 모양이다’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달 15일 경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나는 의회를 위해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고 소송을 나위원장이 갔다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중재위원회까지 두 번이나 갔었고 그런데 응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뭐냐 하면 ‘의장님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테니까 취하를 시켜 주시오’ 참 좋은 말씀이죠. ‘아, 좋다고 내가 여러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나도 자식이 있는 몸인데 취하를 시켜 주겠다 며칠만 기다려라’ 했더니 그런 신문을 또 냈어요. 또 뭐냐 하면 여기에 장애자 및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의장단을 모독하는 신문을 또 내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놓으니까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시다.’ 이러더니 정정을 안해요. 그래서 또 불러서 물으니까 정정을 모르고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번 우리가 지난 12월달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의원들이 애를 쓰고 설렁 거기에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얘기는 여기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모의원들이 자질이 없느니 하는 신문을 또 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돈 안주는 사람은 안내고 돈주는 사람은 내주는 신문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데서 서명을 받아서 의원들 다수가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하자면 하는 것이고 의장으로서 상임위원장들과 회의를 해서 그냥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 돈이라는 것은 의장 혼자 슬그머니 해서는 안되지만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의원 전체의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받아서 현재 처리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뜻이 있는 것이지 형평이나 이런 것은 나도 동감을 하고 또 지금이라도 그런 태도가 보였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양개 신문을 살려주고 형평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의원들 피를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국가로부터 적은 벌금이나 기타 등등 받은 것이 아니라 10개월 정역 2년 집행유예는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따진다면 기자의,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기자의 역할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데다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관에 가서 물어 보든지 어디 가서 물어 봐도 우리 의원들 잘못했다는 말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운영위원이나 의원들의 의견을 묻자는 것이지 아무한테도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나는 보고는 있었지만 사인은 안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합리적이고 화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도 편파적으로 어떤 신문에 치중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불러다가 혼을 내주세요. 의원들끼리도 의장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종로신문이 되었던 종로신문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종로저널도 그렇고 양개 신문을 같이 데려다 하더라도 의장으로서 바라는 바는 혼을 내서 타일러서 종로구민을 위한 신문, 종로의회를 혈뜯지 않는 이런 공평한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저는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의원들 하는 것이 오늘 오후 신문에 또 나온다는데 의회란을 해 가지고 신문이 못마땅하면 신문 당장 끊어야 해요. 뭐 그까짓 것 종로신문이고 종로저널이고 볼 필요없어요. 그러나 이 돈 갖고 사무국에 위임해서 알아보니 의회 소식 외에는 의회보를 만든다든가 기타 만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한 개 신문을 정해 가지고 공평하게 신문을 의회신문을 내자 그러고 그 나머지 돈은 아까 발표를 안했지만

지금 1기에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 내가 저번에도 본회의할 때 '여러분들 발언하는 내용이 지금 기재실에서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한 것은 너무나 1기 때 홍보를 못했어요. 몇 사람만 했어요. 그래서 전부 21명의 발언하는 내용, 활동하는 내용을 카세트테이프로 담아서 편집을 해서 나머지 돈은 그런데 다 중점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제 말씀을 이것으로 갈음하고 이미 서명 안하신 분들도 제 말이 타당하다면 서명해 주시고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丁昌熙委員 議席에서 -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議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지역신문 문제는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공식기록을 남기는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한계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 시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지역신문 문제에 대한 것은 그 시간에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炯述委員 議席에서 - 잠깐만, 丁昌熙委員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정회를 하고 기록에 남는 부분이 어려워져 얘기를 안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金以煥委員 議席에서 - 정회를 하기 전에 金以煥委員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金以煥委員 議席에서 -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金以煥委員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의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말씀에 반박하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예

산 문제는 위원장들하고 의장단에서 의원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 써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議長 金憲中 그런데 議長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委員長 羅在岩 議長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칙에 보면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상 우리가 참고로 지금 하는 것이고 예산집행 권한이 의장한테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고 원만한 의회 활동 운영을 위한 절차상 필요한 것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丁昌熙委員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議長님에 대한 반발이나

○金以煥委員 반발이 아니고 이래서는 안되겠고 말씀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일종의 질의를 한 것인데 제가 한 말씀 중에서 여기가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 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이렇게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법조문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에 있는 의원의 돈을 위원장들이나 의장단에서 결의해서 다 써 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의원들은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숫자나 채우러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얘기 안하고 다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신문사 문제가 두 개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 10원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만나면 싸움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로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의원들이 그러면 우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덕망으로 다스려서 그런 불순한 부분을 시정을 시켜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짓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종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 나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羅在岩 우선 停會를 했다가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선 丁昌熙委員이 의사진행 발언해서 동의 발언을 李炯述委員이 하셨기 때문에 10분 停會를 그러면 1時 23分이니까 1時 35분에 다시 계속 續開하기로 하고 10분간만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3時 23分 會議中止)

(14時 09分 繼續開議)

○委員長 羅在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96 예산집행 계획(안)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 홍보방법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委員 없음)

그러시면 홍보활동비의 집행은 종로신문에 한해서 앞으로 6개월간 계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종로구의회 예산집행 계획(안) 중 종로신문이 지역신문배당이 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여기에서 추가로 직능자생단체 현황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세부계획에 757부인데 통장 425명, 노인정 59개소, 직능자생단체가 273명, 그리고 직능자생단체 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보면 말이죠, 아동보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자생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견

없으세요?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그런 위원회에 배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돌아가면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더 많은 배포가 되는 것이 낫지 특정한 직능단체라든가 자생단체의 위원회 회장들이나 총무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委員長 羅在岩 회장단한테 보내는 겁니다.

○丁昌熙委員 회장단한테 보내는 거죠? 사실 개인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 관내 학교에 2,3부씩 보낸다든가 이런 것이 낫지 직능단체장이나 자생단체장한테 굳이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지역신문을 스스로 구입해서 구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단체장을 맡았으면 다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예우 차원에서 이것을 보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배포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지요.

○丁昌熙委員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8페이지 이의 없으시죠? 의회 5주년 행사, 의회의원 활동비 4,500만원 예산에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그 다음에 9페이지 의원 해외연수비 10명 2,5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委員 있음)

그러면 '96년도 종로구의회 예산집행 계획(안)은 협의 요구한 원안대로 확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 홍보비의 집행은 지역신문인 종로신문이 6개월간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같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年度 第1次 議員 세미나의 開催 協議의 件 (14時 14分)

○委員長 羅在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年度 第1次 議員 세미나의 開催 協議의 件을 상정합니다. 의원 세미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날짜관계 말씀을 아까 2월 1, 2, 3일 그대로 하자는 안하고, 2월 5, 6, 7일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말씀하십시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그러면 아까 丁昌熙委員이 얘기한 것처럼 1일날 가가지고 3일 오면 빠질 議員이 없다고 보나요? 빠질 議員이 없어요? 그러면 빠질 議員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玄壽漢委員 議席에서 - 아니, 빠지지 않는 다니? 鄭泰淳議員 3일날 결혼식인데.)

(○鄭泰淳議員 방청석에서 - 아니, 괜찮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저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여 주십시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1, 2일은 같이 동참을 하죠. 2일날도 동참을 못합니까?

(○玄壽漢委員 議席에서 - 그게 안되죠.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말씀을 나눌 때는 귀를 기울이셨다가 나중에 딴 소리들 하지 마시고, 구청장 동 순방이 3일날 끝납니다. 1, 2, 3일. 그러면 議員 없는 동네 동 순방도 그렇고 자리가 비게 되니까.)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議員이 없을 때는 구청장이 피해서 해야지.)

(○玄壽漢委員 議席에서 - 의원이 동네의 대장이라면서 그러면 의원 없는 동 초도순시가 어디 있으며 훈계 건의사항은 어떻게 다 집약을

시켜요?)

○委員長 羅在岩 지금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 委員이라고 말씀을 속기록에. 지금 안이 두 건이 있습니다. 2박3일이 있고 뒤에 보시면 1박2일이 있고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박2일을 할 경우에는 바로 당일 저녁 세미나를 집어넣게 되어 있고 2박3일은 통일전망대하고 고성을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되는데 우선 1박2일과 2박3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종전에 우리가 1박2일을 위주로 해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委員長 羅在岩 2박3일을 했다고 맨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원래 우리가 여태까지 연수나 세미나가 議員님들끼리만 가는 것은 2박3일도 다녀왔지만.

○委員長 羅在岩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는 2박3일 이렇게 해서 갔다왔고, 설악산 갔을 때도 2박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박2일은 좀 짧지 않습니까? 부인들도 같이 가시면서 그렇게 그냥 오늘 갔다가 내일 온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 말씀하십시오.

○玄壽漢委員 일정은 2박3일로 그냥 해주시고.

○委員長 羅在岩 2박3일로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박3일로 하고, 그러면 계획에 2박3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지금 1안의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 말씀하십시오.

○玄壽漢委員 지금 날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래 鄭泰淳 同僚 議員 결혼식이 아니면 결혼식이 있더라도 만약에 2일날 출발할 것 같으면 구청장 동 순방을 연기시키려고 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1, 2, 3일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못가신다고들 말씀이 아침에 계셨다고. 그래서 구청장 순회를 5일 이후로 잡으라고 변경을 아침에 시키기로 했는데 鄭泰淳議員님께서 결혼식을 3일날에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구청장 일정을 제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議員님이 5, 6, 7일 갔다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짜가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羅在岩 예, 丁昌熙委員 말씀하십시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의 일정을 지금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정이 1, 2, 3일 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5, 6, 7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날 여차피 신희여행을 鄭泰淳議員님이 가지지 않으니까 3일날 두 시 반쯤에 출발해서 4일날 일요일하고 5일날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해서 2박3일 일정을 이렇게 조금 출발시간을 늦춰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委員長 羅在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토요일날, 일요일이 들어서 사실은 4일날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5일날을 했는데 보시면 4일날이 일요일입니다.

○丁昌熙委員 일요일이면 3일날 출발해서 일요일은 서로간에 사업상 바쁘신 일정이 별로 적을 것 같으니까 단 월요일 하루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장이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지금 현재 局長님! 4일을 잡아 넣어도 되겠습니까?

○事務局長 李種相 요금이 호텔요금이 배가 올라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면 우리가 3일날 끝날 때는 오전에 끝나서 체크아웃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3일날 들어가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해

서 지금 요금의 배를 잡아야 됩니다.

○委員長 羅在岩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은 피하고 5, 6, 7일로 했는데 5, 6, 7일은 또 沈載得議員하고 洪起瑞議員이 차질이 생긴다는데.

(○鄭泰淳議員 방청석에서 - 그냥 1, 2, 3일로 잡아주세요.)

○委員長 羅在岩 그러시죠. 1, 2, 3일 원안대로 하도록 하죠. 鄭泰淳議員님께서 그 중요한 날을 우리가 잘 활용해드리도록 하기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玄壽漢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동 순시는 저희들 세미나 관계때문에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연기를 하도록 하죠.

(○玄壽漢委員 議席에서 - 왜냐하면 우리가 1, 2, 3일 간다면 구청장이 연기할 것입니다)

○委員長 羅在岩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구의원 세미나 계획(안)은 의장이 협의 요구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散會)

○出席委員 8人

羅在岩 李炳文 玄壽漢 李炯述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金以煥

○委員 아닌 出席議員

金憲中 吳錦南 鄭泰淳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尹柱彩

○出席關係公務員

事務局長 李種相

1871